

○ Report

[지자체 이름]

도쿄도(東京都) 아라카와구 (荒川口)

[제목]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을 만드는 사업

[사업이 결정된 배경, 이유]

아라카와구는 2004 년 니시카와(西川)구청장의 취임 초부터 ‘구의 행정은 구민을 행복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라는 도메인을 내세워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현해 왔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빈곤·사회배제’에 대한 문제는 미래를 짚어질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나아가 미래의 희망과 장래를 빼앗을 수도 있는 것이기에, 아라카와구에서는 2009 년 5 월에 ‘아이들의 빈곤문제 검토위원회’를 설치, 아라카와구 자치통합연구소와 함께 빈곤배제를 위한 연구를 하여 2011 년 8 월에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공표했다.

보고서에는 42 개의 조사사례의 사례 연구법을 근거로 아이들의 빈곤·사회배제의 세대에 있어서의 ‘리스크’와 ‘결정요인’ 등을 밝혔다. 리스크로는 ①가계의 불안정 ②생활의 부담 ③질환 등 ④가족간 인간관계 ⑤고립 ⑥빈곤의 연속 등이 있으며, 결정요인으로는 ①보호자의 취직 상황 ②보호자의 양육 능력 ③세대에 따른 지원의 유무가 있다고 한다. 또한 아이들의 빈곤·사회배제의 양상으로는 ①학습능력 부족 ②비위생 ③식생활 부진 ④아동학대 ⑤등교거부 ⑥문제행동 이 있다고 했다.

구는 보고서에서 제안한 리스크를 가진 세대의 시그널을 조기에 발견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요인 등의 탈각을 도모하는 ‘아라카와 시스템’을 근거로 하여 방문 교육 상담원의 배치와 등교거부에 대응한 학습지원 사업 등 구체적인 대처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장소 만들기 사업’은 빈곤·사회배제 등의 리스크, 결정요인, 양상의 각 항목에 널리 대응하고, 아라카와 시스템에 연동하는 사업으로서 진행하여, 점차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사업 목적]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생활곤궁세대와 한부모가정, 학대가 있는 가정, 은둔형 외톨이 또는 따돌림을 받고 있는 아이 등)에 대하여 식사의 제공이나 학습지원, 단란하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아이들의 생활적인 면부터 학습적인 것까지 다방면으로 지원을 한다. 아이의 마음·몸·학습의 건강한 육성으로 이어지게 해서, 빈곤을 비롯한 아이들을 둘러싼 여러

문제의 연쇄를 막는 안전네트워크로 한다.

[사업 개요]

- (1) 구의 역할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의 보조, 아이·실시 단체·관련기관 등의 코디네이터
- (2) 참가자
생활곤궁세대·은둔형 외톨이·한부모가정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이.
대상연령은 18 세 이하.
- (3) 단체의 실시 사업내용 ~
학습지원, 식사(저녁)의 제공, 교류·단란
【스케줄의 예】 17 시~학습, 18 시~저녁식사, 19 시~단란, 20~22 시 종료
- (4) 실시 단체의 스태프
지역의 봉사자(10~70 대)
- (5) 구의 보조
1 단체 당 100~250 만엔 정도(규모나 실시횟수 등에 따라 상이함)
- (6) 기타
개최는 일주일에 1~2 회
- (7) 지금까지의 경과
2015 년도에는 2 곳, 2016 년에는 5 곳(2016 년 12 월 시점)

[특징, 선진성]

- (1) 3 가지의 콘셉트
 - ①장소
학교가 아닌 집이 아닌 놀이터가 아닌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제 3 의 장소
 - ②만남
선생님, 가족이 아닌 어른 또는 사회와의 접촉
 - ③성장
마음(교류), 몸(식사), 머리(학습)을 키우는 사업
- (2) 지원이 필요한 아이라면 누구라도
본 사업은 국가와 도의 보조금에 기대지 않고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 재량으로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자치단체 등과 달리, 참가 할 수 있는 아이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아이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 은둔형 외톨이, 부모님이 모두 일하는 아이로 밤에 혼자 있는 아이 등, 넓게 보아 지원을 요구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연령으로는 18 세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 종료 후인 고등학생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 (3) 지역의 힘에 의해 유지할 수 있는 활동

실시장소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휴무일의 음식점이나 민간 회의실, 비어있는 주택 등 다양한 장소를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다. 봉사자로서 아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는 민생위원, 보호사, 구민대학의 졸업생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자가 있으며, 또한 학습 학원의 강사, 조리사 등의 전문적인 스태프도 이 활동에 참가하는 등 지역의 인재가 결집된 사업이다

[사업의 효과]

(1) 아이들에 지원

2016 년도는 약 80 명의 아이들이 이용을 했다. 저녁을 먹지 않았던 아이, 컵라면으로만 생활해왔던 아이도 따듯한 식사를 제공받는 것으로 인해 영양적인 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습습관을 갖게 된 아이들은 집에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한 결과, 학습능력이 향상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아이들이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생활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다.

(2) 지역에서 넓어지는 인연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장소는 지역, 학교, 어린이가정지원센터, 복지부문 등 다양한 관계기관을 잇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과제, 문제점과 대응]

(1) 지역의 밸런스

원칙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지에 의해 사업을 개시·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구에서 실시장소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구 내에서 비어있는 장소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비어 있는 장소에서도 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안을 할 필요가 있다.

(2) 서비스의 질 확보

스태프는 다양한 환경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봉사활동이라고는 하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실시장소에 따라서 서비스 질의 차이가 없도록 스태프에 대한 연수·정보제공이 필요하다.

(3) 안전확보

종료시간은 대략 20 시~21 시다. 참가자 중에는 초등학생과 여자 아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앞으로 전개(기대되는 효과와 사업의 전망, 과제 등)]

아이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다닐 수 있는 사업의 전개 (중학교 학군 정도에 1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 URL]

<http://www.city.arakawa.tokyo.jp/kosodate/shisetsu/kodomoibasho.html>

[소관 연락처]

담당소속 : 육아 지원부 육아지원과

전화번호 : 03-3802-3111(내선)3811

E 메 일 : kosodate@city.arakawa.tokyo.jp

[사진]



학습 중인 모습



아이들의 신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샐러드

○Summary

[상황(배경, 목적 등)]

2009년 5월, ‘아이들의 빈곤문제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빈곤배제를 위한 연구를 하는 등, 아이들의 빈곤문제에 대하여 힘을 쏟으며,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을 만드는 사업’의 실시단체의 보조를 2015년부터 시작하고 있다.

[내용(사업 개요 등)]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이(생활곤궁세대와 한부모가정, 학대를 받는 가정, 은둔형 외톨이나 왕따를 당하는 아이 등)에 대하여 식사의 제공과 학습지원, 단란한 장소를 제공하여 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아이의 생활부터 학습까지 다방면 적으로 지원을 한다.

[효과(특징, 선진성, 앞으로의 전개 등)]

(1) 3가지 콘셉트

- ①장소…학교가 아닌 집이 아닌 놀이터가 아닌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제 3의 장소
- ②만남…선생님, 가족이 아닌 어른 또는 사회와의 접촉
- ③성장…마음(교류), 몸(식사), 머리(학습)을 키우는 사업

(2) 사업의 효과

- 2016년도에는 약 80명의 아이들이 이용
- 따뜻한 식사의 제공을 통해 영양적인 면을 서포트
- 집에서도 공부를 계속하게 된 결과, 학습능력이 향상
-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장소